



## MEDIA RELEASE

[AIGCC 보도자료 2020년 03월 27일]

### 글로벌 투자 기관들:

####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을 재고해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투자 중이거나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한전이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총합산 운용 자산규모(AUM)가 미화로 5조 8천6백억 달러(약 7,178조 원)에 이르는 16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 계획이 한전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초기 성과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배치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전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세계 10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뽑아 탄소 배출 감축을 압박하는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 프로젝트의 대상 기업 중 하나다. 이번 성명서에 참여한 4곳의 투자기관들은 '기후행동 100+'에서 한전에 대한 기업 관여(engagement)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전이 해외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금융 조달을 고려 중인 프로젝트는, 베트남 봉양2, 인도네시아 자바 9&10, 필리핀 팡가시난 등이다. 해당 성명서는 3월 25일(금)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맞춰 발표됐으며, 4월에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한전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신규 석탄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시장에서는 탄소 배출은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크게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예측이 늘면서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전의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 결정에서 대주주인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전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 가능하면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파리기후협약을 비준했다. 따라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 주요 코멘트

### **발레리아 피아니(Valeria Piani) UBS 전략 기업 관여팀 총괄**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인, 또한 전환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아시아 기업들의 지속적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 제공을 우려하고 있다. 한전과 같은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청정 솔루션에 투자하는 기회를 잡고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노력과 대치되는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아시아에서 선두가 될 수 있다”

### **세이지 카와조에(Seiji Kawazoe), 미쓰이스미토모 자산운용의 선임 스튜어드십 담당관**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들은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원의 비용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로서, 친환경 기술과 관련된 기회가 더 많아 지길 기대한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저탄소 전환을 이끌고 경쟁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 **해리 애쉬만(Harry Ashman) 영국성공회 재무위원회 기업 관여 담당 분석관**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한전의 지속적인 투자는 해당 지역의 여러 국가에 많은 양의 배출 가스나 경제적으로 위험한 기반 시설 등의 문제를 떠안게 만든다. 한국은 지금 이웃 국가들이 저탄소를 기반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울 때다. 한전의 최대 주주로서 한국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위배되는 이러한 계획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같이 기후대응 목표를 높여야 하며, 국가 전력 공급자인 한전과 함께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유경 APG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부서장**

“많은 OECD 국가들은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해오고 있다. 동시에 규모가 큰 현지 기업들과 더불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높은 수준의 배출 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조달과 공급망을 관리하는 전략도 향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전이 자국 내에서 독점적인 전력 공급자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OECD 국가의 경쟁자들과 비교해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은 (이러한 전력을 공급받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는 매우 중요하게 감안해야 할 정책적 측면이다.”

### **참고사항:**

본 성명서에 동참하였으며, ‘기후행동 100+’에 참여하면서 한전에 대한 주요 관여(engagement)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 기관은 다음과 같다.

- APG Asset Management
- Church Commissioners for England
- Sumitomo Mitsui Trust Asset Management
- UBS Asset Management

기후행동100+에 동참하고 있고, 본 성명서에 서명한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San Francisco Employees Retirement System
- Union Investment
- CNP Assurances
- BMO Global Asset Management
- AP2
- AP3
- AP4
- KBI Global Investors
- Brawn Capital
- Maitri Asset Management

이번 성명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 그룹(AIGCC)이 조직했다. AIGCC는 아시아 자산가들과 금융기관에 기후변화에 관한 위험과 저탄소 투자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AIGCC는 아시아에서 ‘기후행동 100+’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문의:**

Tom Arup  
Director, Strategic Communications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61(0) 402482910  
tom.arup@aigcc.net